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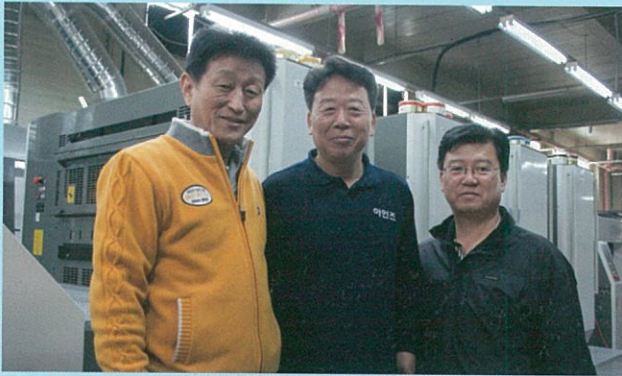


윤민호 아인즈프린텍 대표

“고모리와 반평생 인연... 즐겁게 일하는 것이 사업 비결”

윤민호 아인즈프린텍 대표는 지난 10월 28일 고모리의 최신 인쇄기를 도입하고 오픈하우스를 개최했다. 이날 도입식에는 고모리 요시하루 회장, 고모리 해외영업본부 츠가와 토시유키 본부장, 박경재 일진피엠에스 대표 등 고모리 관계자들이 총출동해 화제가 됐다. 그도 그럴것이 윤 대표는 고모리 총판이었던 양지에서 17년 동안 인쇄기 영업을 해 왔으며, 1989년에는 틈새일즈맨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윤민호 대표와 이혁하 공장장, 서동환 영업이사

최신 고모리 인쇄기를 도입했는데, 그 이유와 기대효과는?

제판설비와 고모리 4색기, 아끼아마 4색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고객들의 요구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쇄품질과 단납기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최신 인쇄기가 필요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고모리 G40을 선택했는데 매우 만족한다.

오픈하우스에 고모리 회장이 방문했는데.

한국을 잠깐 방문했던 고모리 요시하루 회장이 바쁜 시간을 쪼개 방문해 주셨다. 고모리와는 30년 동안 인연을 맺고 있는데, 1982년 국정교과서를 틈사하고, 고모리 국내 총판을 맡았던 양지에서 인쇄기 영업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1989년에는 한 해 동안 90대의 인쇄기를 판매하기도 했다. 1년이 365일이니까 3~4일마다 1대를 판매한 것이다. 그래서 다음해인 1990년 IGAS에서 세계 각국 대리점 및 지사회의가 열렸는데, 그 때 고모리 회장으로부터 톱세일즈맨 금메달을 받았다.

굉장히 높은 판매율인데, 어떻게 가능했는가?

당시만 해도 인쇄산업이 성장하고 있을 때여서 가능했다. 하이델베르크, 만로랜드, 미쓰비시 등에서 수많은 인쇄기가 수입됐지만 고모리가 처음으로 인쇄기 수입 1위를 차지한 때이기도 하다. 높은 판매율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고모리 인쇄기의 성능 향상으로 1만3천매까지 인쇄가 가능해진 이유도 있지만 인쇄인들이 원하는 요구에 잘 부응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인쇄기 수입이 증가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인쇄기 도입은 증가하는데 비해 기술자들은 부족했다. 그래서 고모리 본사측에 요청해 여름 비수기를 이용해 기술자를 양성하는 고모리스쿨을 제안했다. 고모리스쿨을 통해 자연스럽게 고모리를 홍보할 수도 있고, 기술자들 역시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됐다. 지금은 고모리총판이 양지에서 일진피엠에스로 바뀌었지만 고모리스쿨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쇄업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1972년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할 무렵 신문에 국정교과서(주) 공채 시험 공고를 보고 응시했는데, 합격하게 돼 인쇄와 인연을 맺게 됐다. 당시만 해도 상식과 영어 시험을 봐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합격했다. 관리직으로 입사했지만 입사 후 1년 동안은 현장실습을 해야 했고 관리직이라고 하더라도 시설도입업무가 주였기 때문에 인쇄에 대한 지식과 현장경험을 골고루 쌓을 수 있었다. 특히 1980년에는 초등학교 교과서의 지질 및 판형 개편 작업의 실무자로 참여해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지금이야 해외출장 및 연수가 보편화됐지만 당시만 해도 정부 산하단체의 공문이 있어야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관용여권을 발급받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을 방문해 교과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했다. 출장 후에는 매업, 운전, 제판 등 교과서 인쇄 관련 모든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 고모리, 하이델베르크, 만로랜드, 케바우 등 9개 글로벌 브랜드로부터 직접 브리핑을 받았다. 교과서 인쇄를 위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인쇄기에 대한 정확하고 세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양지에 입사한 것도 인쇄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가능했다.

평소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쇄업은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품질관리와 함께 원가절감이 필요하다. 종이 한 장이 모여서 수십장, 수백장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쇄!! 품질향상, 물자절약이 답이다!'라는 플래카드를 크게 걸어놓아 품질관리와 원가절감을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는?

고모리 요시하루 회장이 오픈하우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 67세가 되었다.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아 특별한 운동보다는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것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즐겁고 재미있는 회사를 만들어 갈 것이다.☺



공장내 플래카드를 걸어 품질향상, 물자절약을 독려하고 있다.